

논란 없는 원리를 둘러싼 최근 논란*

최 원 배

【요약문】 최근 이병덕은 직설법적 조건문이 질료적 조건문을 함축한다는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고 나섰다. 나는 여기서 논란 없는 원리에 대한 이병덕의 부정은 전건 긍정식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이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보다 약하다는 주장을 의미하게 된다는 점을 밝힌다. 아울러 나는 그가 그런 견해를 내세우게 된 것은 조건문이 정당화되는 구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주요어】 직설법적 조건문, 논란 없는 원리, 이병덕, 전건 긍정식, 조건문의 진리조건

* 접수일자: 2011.9.11. 심사 및 수정완료일: 2011.10.2. 게재확정일: 2011.10.3.

1. 책은 일상적인 직설법적 조건문(indicative conditional)이 진리함수적 조건문(truth-functional conditional)으로 이해되는 질료적 조건문(material conditional)을 함축한다는 원리를 ‘논란 없는 원리’(the uncontested principle)라 불렀다.¹⁾ 우리가 “만약 A이면 C”라는 직설법적 조건문을 “ $A \rightarrow C$ ”라고 적고, 이에 대응하는 질료적 조건문을 “ $A \supset C$ ”라고 적는다면, 논란 없는 원리는 다음이 언제나 성립한다는 논제가 된다.

$$A \rightarrow C \text{ 따라서 } A \supset C$$

한편 에징톤은 Edgington (1995)에서 “‘조건문’이 진리함수적인가?”라는 물음을 묻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²⁾

조건문이 진리함수적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논증들이 있다. 어느 누구도 $A \rightarrow C$ 가 $\dots \neg(A \ \& \ \neg C)$ 를 함축한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만약 이의 역도 성립한다면, 진리함수적 설명이 옳다.³⁾

여기서 “ $A \rightarrow C$ 가 $\dots \neg(A \ \& \ \neg C)$ 를 함축한다”는 것은 물론 논란 없는 원리를 말하는 셈이다. $\neg(A \ \& \ \neg C)$ 는 $A \supset C$ 와 동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 듯이, 에징톤은 조건문에 대한 진리함수적 분석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다. 도리어 그는 조건문이 진리조건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대목을 인용한 이유는 에징톤이 논란 없는 원리가 조건문 관련 논의에서 어떤 위상과 지위를 지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에징

1) Jackson (1987), p. 4.

2) 논어의 일관성을 위해, 전건을 ‘A’로, 후건을 ‘C’로 통일해 표기한다.

3) Edgington (1995), p. 242.

톤의 요지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논란 없는 원리와 이의 역(이른바 ‘이행 원리’(the passage principle))이 성립한다면 진리함수적 분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병덕은 이병덕 (2008)에서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담한’ 주장을 개진했다.⁴⁾ 이에 대해 송하석이 송하석 (2008)에서 반론을 제시했지만, 이병덕은 이병덕 (2009)에서 자신의 주장을 여전히 옹호하고 있다. 이병덕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면, 앞서본 에징톤의 서술은 이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여기서 송하석과는 다른 측면에서, 논란 없는 원리에 대한 이병덕의 부정이 문제가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2. 우선 직설법적 조건문이 질료적 조건문을 함축한다는 원리가 왜 ‘논란 없는’ 원리라 불릴까? 왜 에징톤은 이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을까?⁵⁾ 이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길은 이 원리의 부정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논란 없는 원리를 둘러싼 최근의 국내 논란에서 빠진 부분이 바로 이 점으로 보인다.

이병덕의 주장대로 다음 논증이 부당하다고 해보자.

$$A \rightarrow C \text{ 따라서 } A \supset C$$

이는 전제가 참인데 결론은 거짓인 경우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 경우를 고려해 보자. 결론에 나오는 질료적 조건문은 전건 A가 참

4) 사실 그는 이행 원리도 부정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잠깐 논의할 것이다.

5) 송하석이 이미 말했듯이, 잭슨이 ‘논란 없는 원리’라고 이름 붙인 이유도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송하석 (2008), p. 175n.

이고 후건 C가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이다. 따라서 이 결론이 거짓 이려면 A와 C는 각각 참, 거짓의 진리값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제인 직설법적 조건문 $A \rightarrow C$ 는 참일 수 있을까? 이 논증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병덕은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이더라도 직설법적 조건문이 참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 조건문 가운데 하나인 직설법적 조건문을 두고서 실제로 많은 논란이 있다. 아마도 논리철학의 주제 가운데 조건문만큼 의견 일치가 적은 주제도 드물 것이다. 우선 큰 틀에서 직설법적 조건문이 과연 진리값을 갖는 명제를 표현한다고 보아야 하는지를 두고서 의견이 갈려 있다.⁶⁾ 에징톤을 위시한 사람들은 조건문은 진리조건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또한 직설법적 조건문이 진리조건을 갖는다고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진리조건을 갖는지를 두고 견해가 나뉜다. 일상적인 직설법적 조건문이 질료적 조건문과 같은 진리조건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스톨네이커⁷⁾처럼 이런 분석을 반대하고 비진리함수적 진리조건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값이 정해지는 모든 방식에 대해 학자들이 논란을 벌이는 것은 아니다. 진리함수적 분석을 반대하고 비진리함수적 진리조건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전건이 참일 경우 후건의 진리값에 따라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값이 정해진다는 점은 대개⁸⁾ 받아들인다. 이들이 부정하는 것은 전건이 거짓이

6) 더 나아가 직설법적 조건문과 가정법적 조건문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를 두고서도 일치된 견해가 없는 실정이다.

7) Stalnaker (1968) 참조.

8) 하지만 가령 리드는 전건과 후건이 모두 참이라 하더라도 바로 조건문이 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Read (1995) 참조.

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직설법적 조건문이 참이 된다는 주장이다. 진리함수적 분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전건이 거짓인 경우 직설법적 조건문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 점에서 진리함수적 분석과 비진리함수적 분석이 나뉘게 된다. 그래서 아래 표에서 (3)과 (4)의 경우 질료적 조건문과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값이 차이가 나게 된다. 아래 표에서 ‘T/F’는 일정 조건이 추가로 만족되는지에 따라 해당 조건문이 참인 경우도 있고 거짓인 경우도 있다는 의미이다.

A	C	$A \supset C$	$A \rightarrow C$	
T	T	T	T	(1)
T	F	F	F	(2)
F	T	T	T/F	(3)
F	F	T	T/F	(4)

그런데 이병덕은 이런 비진리함수적 분석보다 더 나아간다. 앞서의 논의에 따를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진리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A	C	$A \supset C$	$A \rightarrow C$	
T	T	T	T	(1)
T	F	F	T/F	(2)
F	T	T	T/F	(3)
F	F	T	T/F	(4)

내가 아는 한, 조건문에 관한 모든 이론은, 적어도 조건문이 진리값을 갖는다고 본다면,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일 경우 예외 없이 조건문은 거짓인 값을 갖는다고 본다.⁹⁾ 이병덕의 주장은 이런

⁹⁾ 가령 Edgington (2006), 2.1절 참조.

통상적 견해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병덕과 같은 견해를 내세우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런 견해가 전건 긍정식(modus ponens)을 무력화하기 때문이다.¹⁰⁾ 만약 바로 위의 표에 나오는 (2)의 경우에도 조건문이 참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전체 조건문의 참과 전건의 참으로부터 후건의 참을 확신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방금 인정한 대로 전체 조건문은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이어도 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전체 조건문이 참이 된 경우라면, 우리는 조건문의 참과 전건의 참으로부터 후건의 참을 보증할 수 없게 된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논란 없는 원리의 부정은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우에도 직설법적 조건문이 참임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며, 둘째,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우에도 직설법적 조건문이 참임을 인정하게 되면 전건 긍정식은 부당한 논증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결국 논란 없는 원리의 부정은 전건 긍정식이 부당한 논증이라고 주장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논란 없는 원리와 전건 긍정식 사이의 이런 연관성은 논란 없는 원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증명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A \rightarrow C$ 를 전제라고 하자. 그런데 A 가 참이거나 $\neg A$ 가 참일 것이다. A 가 참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전건 긍정식에 의해 C 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 C 로부터 우리는 선언도입규칙에 의해 $\neg A \vee C$ 를 얻을 수 있고, 이는 $A \supset C$ 와 동치이다. 이번에는 $\neg A$ 가 참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로부터 선언도입규칙에 의해 역시 $\neg A \vee C$ 를 얻을 수 있고, 이는 다시 $A \supset C$ 와 동치이다. 따라서 어느 경우이든 전제로부터 $A \supset C$ 를 얻을 수 있으며, 결국

¹⁰⁾ Edgington (2006), 2.1절 참조. 이 점은 노호진 (2006), p. 34에도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한다.¹¹⁾

이 증명에서 드러나듯이, 여기서 사용된 선언도입규칙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 이상, 전건 긍정식을 받아들이면 논란 없는 원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논란 없는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전건 긍정식을 부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것이며, 이병덕은 결국 이런 노선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²⁾

3. 논란 없는 원리의 부정이 전건 긍정식의 포기를 낳는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고 전건 긍정식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전건 긍정식을 받아들이고 논란 없는 원리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당할까?

전건 긍정식은 우리의 사고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추론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를 부정하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전건 긍정식을 버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반 맥기가 보여주었듯이, 전건 긍정식이 보편적으로 타당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¹³⁾ 하지만 어느 누구도 단순 조건문의 경우 전건 긍정식의 반례를 제시한 적은 없으며, 반 맥기가 제시한 반례는 조건문 안에 다시 조건문이 들어 있는 중첩 조건문(embedded conditional)의 사례이다.

4. 우리는 논란 없는 원리의 부정이 갖는 의미를 또 다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 점은 조건문 논의에서 논란 없는 원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살펴볼 때 가장 잘 드러난다. 앞서 1절에서 인용한 예징톤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논란 없는 원리와

11) Priest (2008), p. 15 참조.

12) 이병덕이 의도적으로 이런 노선을 채택했는지는 불분명하다.

13) 반 맥기가 제시한 반례와 관련된 국내 논의로는 최원배 (2001) 참조.

이행 원리는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진리함수적 분석을 옹호하는 두 기둥이다. 이 논의의 구조는 아주 간단하다.

A → C는 A ⊃ C를 함축한다.
 A ⊃ C는 A → C를 함축한다.
 따라서 A → C는 A ⊃ C와 동치이다.

첫 번째 전제가 논란 없는 원리이며, 두 번째 전제가 이행 원리이다. Edgington (1986, 1995) 등에서 잘 부각되었듯이, 논란 없는 원리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진리조건을 갖는다고 보는 이론이 만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진리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달리 말해 조건문에 관한 어떤 이론이든 조건문이 진리조건을 갖는다고 보는 이상 그 진리조건은 최소한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만큼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원리가 바로 논란 없는 원리이다. 바꾸어 말해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은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보다 (더 강하면 강했지 그것보다) 더 약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행 원리는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이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보다 강할 필요는 없으며,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달리 말해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은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보다 더 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두 원리를 받아들여지게 되면,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과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이 정확히 같다는 것이 따라나오게 된다.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진리함수적 분석에 맞서 비진리함수적 분석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방안은 이행 원리를 부정하는 방안뿐이다. 이는 직설법적 조건문은 질료적 조건문보다 더 강한 진리조건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우리 직관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적 조건문이 참이 되려면, 질료적 조건문이 참이 되기 위

한 조건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추가로 만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이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보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강해야 하는지를 두고서는 견해가 다르다. 가령 스톨네이커는 전건이 거짓이라는 사실만으로 직설법적 조건문이 참이 될 수는 없고, 다른 조건이 추가로 만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리드는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참이라는 것만으로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참이 되기에 부족하고 다른 조건이 추가로 만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쨌건 이행 원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직설법적 조건문이 질료적 조건문보다 **강한** 진리조건을 갖는다고 본다는 의미이다.

반면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직설법적 조건문이 질료적 조건문보다 **약한** 진리조건을 갖는다고 본다는 의미이다. 결국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를 모두 부정하는 이병덕은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이 질료적 조건문보다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다는 주장을 하는 셈이 된다. 물론 이 주장 자체가 엄밀한 의미에서 모순인 것은 아니다.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이 아주 포괄적이라면, 그것이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보다 더 강하면서 또한 약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은 조건문 가운데 **가장 약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병덕은 이 질료적 조건문보다 더 약한 진리조건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우리의 일상적 조건문이 바로 그런 진리조건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물론 이런 주장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런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주장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이 문제이며, 그런 대가에는 이미 드러났듯이 전건 긍정식의 포기가 포함된다.

5. 왜 이병덕은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이 이처럼 약하다고

주장하게 되었을까? 이병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송하석의] 비판은 ‘A’로부터 ‘C’로의 추론이 논리적으로 정당한 경우가 단지 연역적으로 타당한 경우만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필자의 추론주의 설명에 의하면 ‘A ∴ C’가 정당한 귀납 논증인 경우에도 ‘A → C’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이른바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¹⁴⁾

‘A → C’가 ‘A ⊃ C’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는 것은 ‘A ∴ C’가 타당한 연역논증인 경우엔 ‘논란 없는’ 원리일 수 있지만, ‘A ∴ C’가 귀납논증인 경우엔 결코 그렇지 않다.¹⁵⁾

이병덕이 내세우는 추론주의에 따르면, A로부터 C로의 추론이 정당할 때 $A \rightarrow C$ 라는 직설법적 조건문은 정당하게 주장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A로부터 C로의 추론이 정당한 경우로 연역적으로 타당한 추론뿐만 아니라 귀납적으로 강한 추론까지 포함시킨다. 이렇게 하면, $A \rightarrow C$ 는 참이지만 $A \supset C$ 는 거짓일 수 있음을 인정하기는 아주 쉽다. 귀납추론은 특성상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참이 아닐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도 ‘강한’ 귀납 논증일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A \supset C$ 는 A가 참이고 C가 거짓이어서 거짓이지만, A로부터 C로의 정당한 귀납 추론이 있으므로 $A \rightarrow C$ 는 여전히 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해서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조건문이 정당화되는 구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기 위해 다음 예를 들어보자.

철학과 학생들은 어느 누구도 A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A를 받

14) 이병덕 (2009), pp. 140-141.

15) 이병덕 (2009), p. 143.

은 학생은 어느 누구도 철학과 학생이 아니다.

이는 명백히 타당한 추론이다. 따라서 이병덕의 추론주의에 따를 때 “철학과 학생들은 어느 누구도 A를 받지 못했다면, A를 받은 학생은 어느 누구도 철학과 학생이 아니다”라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정당화된다. 이는 전건으로부터 후건이 **연역적으로** 추론되어 조건문이 정당화되는 경우이다. 이병덕은 직설법적 조건문이 모두 이런 형태의 논리적 참은 아니라는 데 주목하는 것 같다. 이는 당연하고 옳바르다. 우리가 주장하는 많은 일상적 조건문은 실제로 논리적 참이 아니다. 이로부터 이병덕은 $A \rightarrow C$ 라는 형태의 우연적 조건문, 즉 우연적 명제가 정당화되는 경우는 A로부터 C로의 추론이 **귀납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오해는 바로 여기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조건문을 생각해 보자. “철수가 수업에 가면 영희가 수업에 간다.” 이 조건문을 정당하게 주장하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 이병덕은 “철수가 수업에 간다”로부터 “영희가 수업에 간다”는 것이 귀납적으로 정당하게 추론될 경우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옳바른 대답은 “철수가 수업에 간다”로부터 “영희가 수업에 간다”는 것이 연역적으로 옳바르게 추론될 경우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연역적으로 추론될 수 있을까? 그렇다. 다른 전제가 추가되어야 한다. 가령 “철수가 수업에 가면 지수가 수업에 가고, 지수가 수업에 가면 영희가 수업에 간다”는 전제를 추가하게 되면, “철수가 수업에 간다”는 전제로부터 “영희가 수업에 간다”는 결론을 연역적으로 옳바르게 추론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근거에서 애초의 조건문 “철수가 수업에 가면 영희가 수업에 간다”가 정당화된다. 물론 필요한 전제가 꼭 위의 명제일 필요는 없다. 가령 “철수가 가는 곳은 어디나 영희도 간다”는 전제를 추가해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철수가 수업에 간다”로부터 “영희가 수업에 간다”를 추론해 낼 수 있고, 따라서

애초의 조건문 “철수가 수업에 가면 영희가 수업에 간다”가 마찬가지로 정당화된다. 이렇게 본다면 조건문 $A \rightarrow C$ 가 참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야 한다.¹⁶⁾

전건 A와 합쳐져 후건 C를 연역적으로 추론하게 하는 어떤 참인 진술(들)이 있다.

이병덕은 $A \rightarrow C$ 가 우연적 명제일 경우 이것이 참이 되는 경우는 A로부터 C로의 추론이 **귀납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보다는 A로부터 필요하다면 다른 전제를 함께 써서 C가 **연역적으로** 추론되는 경우에 그 조건문이 정당화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다시 말해 A로부터 C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어느 경우이든 엄밀한 연역추론이지 귀납추론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rightarrow C$ 가 경험적 내용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전건으로부터 후건으로의 추론 과정에 다른 전제들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연적 조건문과 우연적 조건문의 차이는 전건만 가지고서 후건이 연역적으로 추론되느냐 아니면 다른 전제를 추가해야 추론되느냐에 있는 것이지, 이병덕이 생각한 것처럼 전건으로부터 후건이 연역적으로 추론되느냐 귀납적으로 추론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자연 연역체계에서 조건언을 다루는 방식이 위의 제안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자연 연역체계에서 조건언 도입규칙(the rule of conditional introduction)은 A라는 가정으로부터 C로의 추론이 정당할 때 $A \rightarrow C$ 를 결론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하는 규칙이다. 그래서 가령 $(A \& B) \rightarrow C$ 와 같은 필연적 조건문은 전건으로부터 후건이 다른 전제를 추가하지 않고 바로 추론되는 사례인

¹⁶⁾ 이것은 Faris (1968)에 처음 나오는 제안이다. 또한 Priest (2008), p. 15도 참조.

반면, $A \rightarrow C$ 와 같은 우연적 조건문은 다른 전제, 가령 $A \rightarrow B$ 와 $B \rightarrow C$ 라는 전제가 추가되어야 전건으로부터 후건이 추론되는 사례이다. 어느 경우이든 조건문은 전건으로부터 후건으로의 도출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리드는 조건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보여주지는 않으면서도 그런 도출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기록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¹⁷⁾

6.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 보자. 직설법적 조건문이 질료적 조건문을 함축한다는 논란 없는 원리에 대한 이병덕의 부정은 전건 긍정식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이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보다 약하다는 주장을 의미하게 된다. 그가 이처럼 약한 진리조건을 내세우게 된 것은 조건문이 정당화되는 구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¹⁸⁾

17) Read (1994), p. 261 참조.

18) 세 분 심사위원들의 건설적인 지적에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이분들의 지적을 이 논문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나는 내 견해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고 보며,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노호진 (2006), “조건문에 관한 성향적 분석”, 『논리연구』 9집 2호, pp. 31-57.
- 송하석 (2008), “직설법적 조건문의 의미론: 성향적 분석과 추론주의적 설명에 관하여”, 『철학적 분석』 18호, pp. 167-177.
- 이병덕 (2008),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설명”, 『철학적 분석』 17호, pp. 135-164.
- 이병덕 (2009),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 설명과 송하석 교수의 반론”, 『철학적 분석』 19호, pp. 139-147.
- 최원배 (2001), “전건 긍정 규칙의 반례에 대한 카츠의 비판”, 『논리연구』 5집 1호, pp. 63-79.
- Edgington, D. (1995), “On Conditionals”, *Mind* 104, pp. 235-329.
- Edgington, D. (2006), “Conditionals”, <http://plato.stanford.edu/entries/conditionals/>
- Faris, J. A. (1968), “Interderivability of ‘ \supset ’ and ‘If’”, in *Logic and Philosophy: Selected Readings*, ed. G. Iseminger, Appleton-Century-Crofts, pp. 203-210.
- Jackson, F. (1987), *Conditionals*, Basil Blackwell.
- Priest, G. (2008), *An Introduction to Non-Classical Logic*, 2nd ed. Cambridge Univ. Press.
- Read, S. (1994), “Formal and Material Consequence”,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23, pp. 247-265.
- Read, S. (1995), “Conditionals and the Ramsey Test”,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 69, pp. 47-65.
- Stalnaker, R. (1968), “A Theory of Conditionals”, reprinted in

Conditionals, ed. F. Jackson, Oxford Univ. Press, 1991,
pp. 28-45.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wonbae Choi@hanmail.net

On the Recent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Uncontested Principle

Wonbae Choi

Recently Byeong Deok Lee has denied the validity of the so-called uncontested principle, which says that the indicative conditional implies the material conditional. I show that his denial means that modus ponens is not valid and that the truth-conditions of indicative conditionals are weaker than that of material conditionals. It seems that what made him hold this view is related to some misunderstanding of indicative conditionals.

Key Words: Indicative Conditionals, the Uncontested Principle, Byeong Deok Lee, Modus Ponens, Truth-conditions of Conditionals